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모두가 되길

사고 수습에 최우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애도



정서영 목사

무안공항 항공기의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큰 참사라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도 되지 않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지만, 아픔을 함께 지고 슬픔에 함께 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사고 수습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고, 기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수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번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사랑나눔행사 갖고 생필품 500박스 이웃에 전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어려운 이웃과 탈북민선교회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한창종)는 12월 17일(화)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과 탈북민선교회(최금호 목사)에 '사랑나눔 성탄박스' 5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주다산교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성탄박스에 4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았다.
화성시 7개 지역 주민센터와 독거노인 시설 남양집, 다정마을 사랑밭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박스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로교 연합기관인 한창종과 함께 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작은 성탄 박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삶의 평화가 전해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소식이 널리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창종은 이날 사랑 나눔을 시작으로 42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매월 한차례씩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1월에는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사랑을 펼치기로 했다.

AI 기반 남북한 번역 모델개발

국제학계 주목... 한동대 KISTI 공동연구팀

IT 기술을 통해 남북한 언어장벽을 허물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동대학교 한동인공지능연구소(HAIL, 지도교수 황철길)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AI 기반 남북한 번역 모델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IT 기술을 통한 통일 준비의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번역 모델을 활용해 남북한 언어 번역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연구의 핵심은 KISTI NKTech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분원을 바탕으로 구축한 최

초 남북한 병렬 문장장 데이터셋이다. KISTI의 최현규 박사는 "남북한 문화적 단절의 시발점이 되는 언어 이질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영불균형 해소 '참 외롭지 않아'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문경사과 2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지난해 12월 11일(수) 서울 지역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문경 사과 2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 외롭지 않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불균형이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철 과일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사회적 은기를 전하고자 기획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정포커스' 연구보고서(2021.8)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하루 평균 과일 섭취량은 134g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180.7g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최근 진행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침요, 감홍사과 지원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한 명의 친구가 있을 때 살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라는 재단의 슬로건처럼,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친구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이 영양가 높은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수혜자들이 마음의 온기까지 함께 전달받았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이번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 사과농장 '에플스타'와 협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철 과일 지원과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탄절 축하예배 및 시상식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 새해 하나님의 복을 기원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주태, 총재 김호일 이사장 원종분/이하 한노총)가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을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며 12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노숙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이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오늘 노숙자와 함께하는 성탄절 축하예배 및 시상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날"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그림자가 되어 병행하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있다."

한노총 총재 김호일 목사는 대회를 통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자 함께하고 있다"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시상식에서는 송용필 목사(카이로 연합회장)와 나영수 목사(나눔과기쁨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주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재형 전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노숙인들이 주는 특별한 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총장 양창부 목사와 한국기부재단 이사장 박장옥 목사, 원종분 목사 등이 함께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시상식에 앞서 드려진 성탄절 축하예배는 김마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유순조 목사(총무)의 대표기도, 장양근 반장의 특별

찬양, 김화자 사모(한국기부재단 운영위원)의 성경봉독, 박분자 목사(한국기부재단 운영위원)의 '복이 있는 사람(마 5:1-3)'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오상식 목사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윤봉순 목사가 '노숙자들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오성훈 총반장이 '한노총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유광자 목사(한국원로목자교회 회장)의 헌기도, 이주태 장로의 광고, 송용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1회 미래목회포럼 정기총회 개최

임원회 대신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 개편

(사)미래목회포럼은 제21회 정기총회 및 대표,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열렸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날 새로운 대표로 새중 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선임하고 기존의 임원회 대신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AI인공지능위원회와 사회적공공성강화

위원회, 통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사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대 조류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을 실제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인에게 연구프로젝트로 의뢰해 내년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목회포럼은 설 명절과 추석을 맞아 고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흥교회 방문 간증 수기 모집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흥교회 방문 수기 모집에 당선된 새강교회 박무형 권사의 시상식도 열렸다.

한기총 총무협, 제24회 정총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 선출건 심의처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 총무협의회(회장 서승원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15층 세미나실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승원 목사를 회장에 재선출했다.

예배는 부회장 이종복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영구 목사의 기도, 회계 한창환 장로의 성경봉독, 한기총 사무총장 김경환 목사의 설교, 총무 노문호 목사의 광고, 증명회장 김경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정기총회 회부처리는 의장 서승원 목사의 인사 후 서기 원종경 목사가 회원점명 결과 성원이 됨으로 개회 됐다. 경과 및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받기로 하는 한편 한기총에서 요청한 정관개정의 건과 대표회장 선출의 건



희망친구 기아대책, 여성가장 자립지원 '원더마켓'

여성 가장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하는 '놀라운 시장' 열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기아대책 홍보대사들과 함께 여성 가장의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원더마켓'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금)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센터스퀘어 '리리라운지' 및 행복한나눔가게 문래점, 왕십리점, 서울대입구역점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배우 김혜은, 뮤지컬 배우 홍지민, 아나운서 이선영 등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들이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배우 김영선, 소프라노 임선혜, 아나운서

이정민 등 각 분야 정상의 셀럽들도 유명 브랜드 의류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예술품 1500점 가량을 기부하며 여성 가장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외에도 여성 가장 사업가로서 기아대책을 통해 재능기부를 익혀, 현재 행복한나눔 매장에 직접 물품을 납부하고 있는 흥해경 홈테리어 대표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번 마켓에서는 다양한 물품 판매와 함께 방문객이 즐기며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기아대책 셀럽들이 개인 기증한 상품과 기업 협찬 물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으며 고가의 주얼리 제품을 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특별 경매 코너'가 운영됐다.

대통령 탄핵 시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국회(민주당)가 헌법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1월 4일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3 이상의 비준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탄핵소추요건이 취소된 것으로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계엄령 선포 등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령이 아닌 절차 등의 문제로

서 법률적 다듬의 여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부분이 취소되었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재의결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한 것이다.

자극의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는 다음 6개 사항을 전체 대한민국 국민과 22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제언하는 바이다.

①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안이 무효화된 만큼, 현재는 지금 즉시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이를 기각하라!

② 공수처와 검·경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불법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라!

③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대한민국 헌법 수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헌정의 지속을 위해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라!

④ 검·경과 군은 공수처의 지시를 무작정 따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반란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경계망동 하지 말라! 국군은 오직 국가 안보에 충실하고 경찰은 국민 안전 업무에 매진하라!

⑤ 모든 내외신 언론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히 보도해줄 것을 당부한다.

⑥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 시민사회는 침착하고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감사합니다.

2025. 1. 5.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준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동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부흥사회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회장 김건수 목사	수석부회장 조길수 목사	부회장 김배울 목사	부회장 임형순 목사	상임위원 오승욱 목사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상임위원 백영자 목사	상임위원 조병희 목사	상임위원 김종연 목사	상임위원 오세준 목사	상임위원 조은혜 목사	상임총무 정광호 목사	실무총무 윤재영 목사	실무총무 조선남 목사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	실무총무 박종렬 목사	실무총무 김연옥 목사	실무총무 김명주 목사
실무총무 정광호 목사	서기 김기찬 목사	재무 옥보애 목사	회계 김남수 목사	감사 최남성 목사	정회원 윤성수 목사	정회원 권택선 목사	정회원 홍현자 목사	정회원 최승수 목사	정회원 주창민 목사	정회원 우광택 목사	정회원 기호선 목사	정회원 이형은 목사	정회원 황연선 목사	정회원 예경희 목사	정회원 김희자 목사	정회원 조미숙 목사	정회원 박은경 목사	정회원 안병찬 목사

문의 회 장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홈페이지 : 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인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을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
- 신인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월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6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출입 후 전도사 인명지급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타 신학교에서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M.M/Master of Ministry)	목회학 석사	3학년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4년제 신학석사 학위 또는 2년제 신학석사 학위 • 은사서 발급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월료 ① 전월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6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독교계증서(종교인사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자치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의성고, 월드비전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

아동권리대표단과 함께 의성군 폭염 대응 위한 정책 제언

국제개발협력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아동권리대표단, 의성고등학교 학생들과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해 12월 20일 밝혔다.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는 2023년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전국 10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 아동들이 기후위기 분체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폭염'과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집단'과 '지역에 대한 보호'였다. 이에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을 줄이고 모두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동 주도 옹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인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 재난 취약성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의성군이 경북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폭염의 강도 및 빈도가 높고, 폭염에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점, 아동 인구 비율이 낮아 기후위기 정책 형성 과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후위기 취약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7월 의성군 주민의 폭염 관련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민 126명 대상 설문조사 및 아동, 노인 12명 대상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성고, 안계고 학생들과 '경상북도 의성군 폭염 실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 특히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폭염에 취약한 아동 및 노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 '나인퍼레이드'

한겨울 몸짱 산타들이 전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한해를 뚫고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산타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명동과 21일 남산에서 각각 '나인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을 구하려는 나인(9)퍼레이드, 올해 10주년 맞아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나인(9)퍼레이드'는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나눔을 기리고,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고 있다.

올해로 진행 10회를 맞은 나인퍼레이드는 20일 스포츠 트레이너 및 본부 홍보대사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명동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치고, 21일에는 VMK한국 시각장애인마라톤회가 동참하는 남산 퍼레이드를 양일

간 펼쳐 한겨울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 강추위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하는 '생명나눔 산타' 12월 20일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명동으로 나선 생명나눔 산타의 주역은 대한민국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인 아들드 홍 씨와 방송인 에바 포피엘 씨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초록리본'과 'SAVE' 등의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부착한 채 거리를 행진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10번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아들드 홍 씨는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건디는 고통에 비하면 잠깐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더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명을 나누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의성 구세군 노매실교회

의성 구세군 노매실교회는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최미숙 사관은 처녀 때 간호사로 있으면서 응급구조사 119로 근무하던 중 직장을 옮기면서 첫날 새벽기도를 근무했던 병원 옆 순복음교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김호영 사관의 은혜가 넘치는 특송에 감동되어 1년 교제 후 결혼하게 되었다. 찬양에 감동되어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구세군신학대학교에 부부가 입학했다. 남편은 순복음신학을 하고 은행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아내(최미숙)로 맞이하게 되었다. 최미숙 사관은 육적인 119가 아니라 영적인 119 응급 구조자이다. 처음에는 1년 정도 기도원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는 김해구세군교회, 세 번째는 의성노매실교회에서 5번째 헌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노인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두 사람은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끊임 없이 섬김과 노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

보청기를 달아드리고, 영양제를 주시하고, 여러가지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센스있는 사역자들이다. 특히 마을이 많이 나는 농촌에 일거리를 도와주고 칼을 많이 쓰는 농촌 노인들에게 집집마다 칼을 갈아주는 등 최대한의 시골목회, 노인들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사관들의 소원은 처음과 끝이 영원원이다.

노매실교회는 113주년 되는 교회다. 625 때 노영수 사관이 순교한 흔적이 있는 교회다. 모두가 피난 갈 때 끝까지 성전에 남아 있는 분들과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들 지키다가 순교한 교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매일 노매실교회 부근의 회관을 다니면서 영접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3730-2573



소개하려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총신대와 업무협약

생명나눔 문화 확산 청년 세대 생명나눔 실천 모범사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해 12월 12일(목) 총신대학교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캠퍼스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총신대학교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9일간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학생 15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재학생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장기기증 서약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년 세대 생명나눔 실천의 모범 사례가 된 총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교육,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협력, 교내 생명나눔 캠페인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민선 지역사회봉사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



기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설립된 기독교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개혁신학과 개혁신앙, 그리고 개혁실천을 바탕으로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가방앤컴퍼니 15억 원 상당 유아동의류 기부

지파운데이션 기부물품 미혼한부모 등 취약계층 위해 사용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은 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국)가 취약계층을 위해 15억 원 상당의 유아동의류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기부 물품은 총 15억 원 상당의 아가방, 예프와 유아동의류와 퓨도 유아동 용품 36,000개이다. 기부 물품은 미혼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 등 필요한 유아동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며, 일부는 나눔기계를 통해 판매되어 수익금은 저소득



소득 아동청소년 미혼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기부를 기획한 아가방앤컴퍼니 전략마케팅 김광문 팀장은 "아가방앤컴퍼니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아가방앤컴퍼니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사랑받고 지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 1) **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 **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용기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지금은 고인이 되었으나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최절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는 두려움 없는 자가 아닌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상담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Ann Landers)는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부터 한 달에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많은 편지의 내용을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종 격투기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효도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효도르는 말하기를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혹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질병보다 더 많이 죽인다'는 말이 옳아 보입니다. 강인함의 상징인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보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시립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삼하 22:30)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무기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 27년 만에 석방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 56:11)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시린 세월의 위로자

가냘픈 목과
흘리기버린 세월의
시린 손목과 시린 발목
웃으로 머물러로
덮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뺨 뚫린 시린 가슴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덮여지지 아니하네.
시린 가슴 아픈 마음
다독이고 위로할 이
사람을 만든 이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때를 따라 일하는 분
비람 부는 시린 가슴에
사랑으로 찾아와 마음 덮으면
핏값으로 찾은 생명
온기찾은 마음으로 살아기리라.

30대에 혼자된 친구의 가슴이 시리다는 고백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 이 글을 쓴다.

사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기를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새로워 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겠다. 역사를 새롭게 하고, 시립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극한 겨울이라도 따스한 봄날이 되면, 모든 것이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상처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 억울하다며 분노하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를 지고 살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원한과 미움이 풀이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능력과 소망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돌처럼 굳은 손마디들이 부드러워지고, 굴곡 많은 세상, 막히고, 묶이고, 미워하여 즐기는 눈에도 온정이

흐르기를 바란다.

모든 갈등 세력, 그런 것을 밟고 바른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잘못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사람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강한 욕심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며 외나무다리 위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온 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가 되기 바란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수심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져 분열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되는 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 건국 77주년이 되는 해,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고 광복을 이루어 자유를 얻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꽃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제 66조부터 제85조까지 무려 20개조에 이르는 대통령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관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 국가 통치와 운영을 위임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으로 짜놓고 선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지식인 원로 한 분은 야당의 정치에 대하여 '중요의 정치를 넘어 야수(野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오직 야당은 내부 지도자의 범죄적 과오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탄도 마다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은 '호위부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를 '좌파 선동가'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 한·미 공조를 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우리나라 주적(主敵)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심문에 가까운 질문을 통하여 낱말이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단연 언론들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빠지지 않고 있다. 아직 헌법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불고 가는 언론도 있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은 끝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야수 정치를 하면서도 이를 멈출 줄 모르는 정치권과 그들 편에서 있는 언론들과, 그리고 일부 동조하는 국민들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성령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 수련회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 수련회 기념촬영 풍경

-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3월 1일(토)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상 : 교단 산하 청년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총무 배윤호 목사 010-7331-4565